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김 재구(협성대 강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52

본 논문은 원역사 속에서 아담과 노아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신앙적 성취가 이들의 실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치를 족장사의 시작을 여는 인물이라는 강조점보다 아담과 노아의 뒤를 잇는 원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두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목 차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3

아담과 노아의 실패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공

김 재구 | 협성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창 1 - 11장을 지칭하기 위하여 학자들이 전문용어로 쓰고 있는 ‘원역사’(the primeval history)와 12-50장을 가리키는 ‘족장사’(the patriarchal history)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용어를 놓고 말장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에 대한 특정한 지칭과 구분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단지 사람의 편익을 위한 고안물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편익’이라는 말은 성서 해석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람의 담합을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원역사’는 무려 20세대를 신속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족장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까지 단지 네 세대만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¹⁾ 이 갈릴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분명 새로운 시대, 즉 그 전의 시대와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에 틀림없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부분이 열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0-11쪽.

세 장(창 11: 27 - 25: 11) 정도로 '원 역사'라고 불리는 20세대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수천 년의 역사보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후의 신앙 여정인 100년의 세월이 더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는 결코 그 보다 앞서 나타났던 인물들과 분리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즉 아브라함과 그 보다 앞서 나타났던 두 중요 인물인 아담과 노아와의 비교이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와 그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를 동시에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아담'이며, 또한 '두 번째 노아'로서의 이상을 실현한 것을 강조할 것이다. 즉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회복된 세상을 제시할 것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부서진 '원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족장들의 이야기와의 연계성보다, 오히려 아담과 노아가 이루지 못한 소명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사명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을 다루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연구의 방법론이 제한된다. 창세기를 자료별로, 양식별로, 혹은 전승사별로 나누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문학적, 신학적 통일성에 바탕을 둔 정경적 접근과 그 이후의 발전을 따르고 있다. 차일즈(B. S. Childs)는 폰 라트(G. von Rad)와 베스터만(C. Westermann)의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을 비교하며, 폰 라트의 족장사에 대한 원 역사의 종속성도 아니고, 베스터만이 주장하는 원 역사의 완전한 독립성 강조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세계를 의미하는 원 역사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족장사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역할로 인해 그 화해에 이르는 것을 본다.²⁾ 이러한 정경적 방법론의 가치는 이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아담과 그의 실패

2)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154-155쪽.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웅장한 창조의 대 서사시로 시작하고 있다. 그 창조는 결코 무(無)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창 1: 2). 이러한 무질서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н **גִּיב**(토브/좋았더라; 창 1: 4, 10, 12, 18, 21, 25), **רָאָה גִּי** (토브 매우 드/매우 좋았더라; 창 1: 31), 그리고 **נָתַן**(바라크/복을 주다; 창 1: 22, 28; 2: 3)라는 반복적인 문구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자신이 특별히 지으신 가장 살기 좋은 땅인 에덴동산에 두셨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태초의 상태가 '매우 좋았고, 질서정연하며, 조화로운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³⁾

특히 에덴동산은 그 특징만으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에덴동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⁴⁾ 첫째로, 에덴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다(창 2: 9). 동일하게 성전 내부에는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겨 풍성함을 상징했고(왕상 6: 29, 32, 35; 겔 41: 16-26), 또한 성전의 환상 가운데 그 주변으로 만국을 살리는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겔 47: 7-12; 계 22: 1-3). 둘째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 세계를 적시는 것은(창 2: 10) 성막과 성전의 물 두명과 못 바다(출 30: 17-21; 왕상 7: 23-40)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을 연상시킨다(겔 47: 1-12; 계 22: 1-2). 셋째로, 에덴의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창 2: 12)에 대한 보석의 언급은 성막과 성전을 짓는 중요한 재료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호마노는 대제사장 복장에 사용되며(출 25: 7; 28: 9, 20), 베델리엄은 히브리 성서에 단 두 번 나타나는데, 만나가 베델리엄(식물성 진주) 같다고 하며(민 11: 7),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지성소에 보관된다(출 16: 33). 넷째로, 사람을

3) W. J. Dumbrell, *Covenant &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Devon: Paternoster Press, 1984), 27-28쪽; G. J. Wenham, *Genesis 1-15* (WBC), (Waco, Texas: Word Books, 1978), lii쪽.

4) G. J. Wenham,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R. S. Hess & D. T. Tsumura (eds.),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4), 399-404쪽.

만드시고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עֲבַד וְשָׁמַר 아바드 웨사마르) 하셨다(창 2: 15). 이 두 단어가 오경 속에서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세 번으로, 모두 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성막에서의 직무 수행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민 3: 7-8; 8: 26; 18: 5-6). 이것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일이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직무와 동일함을 보이는 것이다. 다섯째로, 동산을 ‘거니시는’(מִתְהַלֵּךְ 미트할레크) 여호와의 모습이다(창 3: 8). 이 ‘거닐다’라는 동사는 사람에게 자주 쓰이는 단어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항상 성막에서 ‘거니시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레 26: 12; 신 23: 15; 삼하 7: 6-7).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עֲשֵׂה לָהֶם אֵפוֹד 알비셈; 창 3: 21)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출 28: 41, 42; 29: 8; 40: 13, 14; 레 8: 13). 이것은 아담이 앞으로 서게 될 속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편에 그룹과 화염검을 두셨다는 것은 그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다(창 3: 24). 성막과 성전 또한 동쪽에만 출입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룹은 성막과 성전 안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로 나타난다(출 25: 18-22; 왕상 6: 23-28). 이와 같이 에덴동산의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완전한 성전의 모형임을 느낄 수 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하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살아 있는 곳이다.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인간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던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동행이 있는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살아있던 장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알맞은 삶의 장소까지 선물로 부여받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괴되고 만다. 첫 사람 아담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나무의 형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초점이 열매가 있는 나무의 시각적인 요소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 하나님

의 반응에서 그 강조점이 결코 나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그 특별한 나무의 특성은 사라지고, 단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קוץ 짜바) 나무의 열매”(창 3: 11, 17)라는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⁵⁾ 인간 스스로가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의지를 파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⁶⁾

“아담이 저지른 이 불순종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차후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금석이 된다. 아담의 불순종 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문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창 3: 17)라고 질문하신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근본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כִּי שָׁמַעְתָּ לְקוֹל אִשְׁתְּךָ) 사마타 레콜 이쉬테카)라는 질책에 들어 있다. 여기서 ‘말을 듣다’라는 숙어적 표현인 לְקוֹל שָׁמַע(사마 레콜)은

קוֹל שָׁמַע(사마 베콜)과 더불어 히브리어 단어에는 없는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된다.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다. 그곳에는 인간 창조의 본질인 예배가 전적으로 파괴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의 추방과 사람이 몸 붙여 살아가는 ‘땅이 저주’(אָרֶרְהָ הָאֲדָמָה) 아루라 하 아다마)를 받아서 고역의 노동을 통해서야 겨우 먹고 살만큼의 소산을 얻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과 연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형제 사이의 다툼이며 분열의 시작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악을 행한다. 쫓겨난 그 땅에서조차 인간은 살아가기 힘든 운명에 빠져버렸다.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אֶרֶץ אֲתָהָ) 아루르 아타)...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창 4: 11-12)고 선고하신다. 땅에는

5) B. S. Childs, "Tree of Knowledge, Tree of Life," (*IDB*),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696-97쪽.

6) W. M. Clark, "A Legal Background to the Yahwist's Use of 'Good and Evil' in Genesis 2-3," *JBL* 88 (1969), 277쪽.

인간으로 인해 계속적인 저주가 퍼부어진다. 창조의 이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복 주심'(בָּרַךְ 바라크)은 사라지고 '저주'(רָרַךְ 아루르)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에덴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⁷⁾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길한 연합은 이 세상을 또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장소로 만들고 만다(창 6: 1-4). 그리하여 결국 בִּי (토브/좋았더라), וְיָבִיב (토브 메오드/매우 좋았더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창조가 מְרָרָה רָרַךְ (라바 라아트 하아담/사람의 악으로 가득 찬)의 세상으로 그 첫 번째 막을 내린다(창 6: 5).⁸⁾ וְרָרַךְ (토브 와라/선과 악)를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בִּי (토브/선)가 사라지고 רָרַךְ (라/악)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창 6: 5). 이제 세상은 땅이 물로부터 갈라지기 전 그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⁹⁾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고 마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누가 이 '저주'와 '악'의 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복 주심'과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의 회복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으로 인해 가능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3. 노아와 그의 실패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찬 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주와 극심한 노동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도 기다림의 대상이다. 이 사실은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희망으로 주어져 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רָרַךְ 아라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창 5: 29). 노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대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시

7) F. Landy, "The Song of Songs and the Garden of Eden," *JBL* 98 (1979), 513-28쪽; 김창주, "에로스 동산과 에덴동산," 『구약논단』 25집(2007년 9월), 120-41쪽. 이들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8) Gary 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Indiana: Eisenbrauns, 1986), 23쪽.

9) Wenham, *빛글*(1978), 11쪽; B. W. Anderson, "From Analysis to Synthesis: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1-11," *JBL* 97 (1978), 39쪽.

작한다. 노아가 경험한 대홍수는 어느 모로 보나 세상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임을 다음의 비교를 통해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¹⁰⁾

혼돈의 물인 '깊음의 샘'(בְּיַרְיָם 테흠)이 지배(1: 2a)	혼돈의 물인 '깊음의 샘'(בְּיַרְיָם 테흠)이 터짐(7: 11)
하나님의 신(אֱלֹהִים 루아호)이 수면에 운행함(1: 2b)	바람(רוּחַ 루아호)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8: 1)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남(1: 9-10)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감하여 산들의 봉우리가 보임(8: 4-5)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냄(1: 11-12)	저녁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8: 11)
조류, 어류, 생물과 육축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심(1: 20-25)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8: 17)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בְּרָכָה 바라크)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심(1: 26-28a)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בְּרָכָה 바라크)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심(9: 1)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심(1: 28b)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하심(9: 2)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심(1: 29)	산 동물이 인간의 식물이 됨, 채소 같이 이것들을 음식으로 허락하심(9: 3)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하나님 창조의 완성의 표)(2: 1-3)	무지개를 새 창조의 언약으로 주심, 더 이상 물 심판은 없을 것임을 약속하심(9: 8-17)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노아를 통해 완성되었다. '복 주심'(בְּרָכָה/바라크)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축복을 회복할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에서 그 삶을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노아를 아담이라는 '원형'(原型 prototype)에 대한 '올바른 회복이나 복원을 상징하는 맞상대'가 되는 '대형'(對型 antitype)이나, 또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

10) J. M. Sasson, "The Tower of Babel as a Clue to the Redactional Structuring of the Primeval History (Gen. 1-11)," G. Rendsburg (ed.), *The Bible World: Essays in Honor of Cyrus H. Gord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211-19쪽; R. L. Cohn, "Narrative Structure and Canonical Perspective in Genesis," *JSTOT* 25 (1983), 5쪽; Susan Niditch, *Chaos to Cosmos: Studies in Biblical Patterns of Creation*,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5), 22-24쪽; Jan P. Fokkelman, *Reading Biblical Narrative: An Introductory Guide*, Ineke Smit (tran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56-57쪽.

다. 그리고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 지역을 에덴동산을 대신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¹¹⁾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통해, 그 땅을 성전의 모형이었던 에덴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껴볼 수 있다(창 8: 21).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심으로 또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노아의 시작은 화려한 믿음의 칭호와 함께 시작된다. 노아는 “의인이요 (אִישׁ צַדִּיק), 당세에 완전한 자요(תָּמִים) 타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창 6: 9). 그러나 그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자마자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만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 희망의 상징이다. 그 이유는 드디어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 또다시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창 3: 17; 4: 12; 8: 21).¹²⁾ 이스라엘 신앙에서 포도주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임(삿 9: 13; 시 104: 15)과 동시에, 또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죄악의 근본으로 비판되기도 한다(호 4: 11; 암 2: 8, 12; 6: 6; 미 2: 11). 노아는 거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שָׁכַר) 샤카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웠다(창 9: 21). 그리고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근친상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풍요 제의에 물든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든지, 혹은 그 둘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범죄이든지 간에 노아의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 이것은 둘 다 이방적인 요소로서,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심각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한다(레 18장).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벗고 드러누웠다는 보도 속에는 단순히 노아의 빗나간 행동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서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두

11) K. R. R. Gros Louis, “Genesis 3-11,” K. R. R. Gros Louis (ed.), *Literary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vol. II, (Nashville: Abingdon, 1982), 50쪽; Robert W. E. Forrester, “Paradise Lost Again: Violence and Obedience in the Flood Narrative,” *JSOT* 62 (1994), 3-18쪽.

12) Hamilton, *읽기*, 321쪽.

13) Wenham, *읽기*(1978), 199쪽; F. W. Bassett, “Noah’s Nakedness and the Curse of Canaan: A Case of Incest?” *VT* 21 (1971), 232-37쪽.

사건 모두 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과 연관되고, 특정한 나무와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 그리고 벌거벗음과 연관된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 사건은 아담 이후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인간이 또 다시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며, 그 기회를 실패로 마감하는 두 번째 타락이라는 것이다.¹⁴⁾ 이것은 이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각적으로 아비의 하체를 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קָנַעַן רָרָר 아루르 케나안)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 25).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노아가 오히려 이 땅에 저주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저주는 형제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든다. 흡사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처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함과 셈은 가인과 셋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¹⁵⁾ 먼저 가인과 함의 후손인 니므롯에게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인이 여호와 앞(לְפָנֵי יְהוָה; 밀리프네 야웨)을 떠나서(אַחַּא; 야짜) 에덴 동쪽 늦 땅(בְּאֶרֶץ-נוֹד; 베에레쯔-노드)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בָּנָה; 바나)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שֵׁם; 셈)하여 에녹이라 하니라(창 4: 16-17)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לְפָנֵי יְהוָה; 리프네 야웨)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며...그의 나라는 시날 땅(בְּאֶרֶץ שִׁנְעָר; 베에레쯔 신 아르)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앓수르로 나아가(אַחַּא; 야짜)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בָּנָה; 바나) 이는 큰 성읍이라(창 10: 9-12)

14) A. J. Tomasino, "History Repeats Itself: The 'Fall' and Noah's Drunkenness," VT 42 (1992), 128-130쪽; Forrest, 윗글, 15-17쪽. 아담, 가인, 그리고 노아가 행한 범죄에 대한 상세한 비교 대조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Devora Steinmetz, "Vineyard, Farm, and Garden: The Drunkenness of Noah in the Context of Primeval History," JBL 113 (1994), 197-98쪽.

15) Rendsburg, 윗글, 16쪽.

다음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과 노아의 아들 셈에게 사용된 공통된 표현을 보기로 하자.

셋도 아들을 낳고(בן-גַּלְגַּלִּים אֲנֹכִי-וְשֵׁם לֵשֶׁת קַמ־חַוֵּרָה 레세트 감-후 올라드-벤) 그의 이름(שֵׁם)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שֵׁם)을 불렀더라(창 4: 26)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בְנֵי-קַלְבַּנִּים... אֲנֹכִי-וְשֵׁם לֵשֶׁת קַמ־חַוֵּרָה 레셈 올라드 감-후 콜-베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창 10: 21-22)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셋이 갈라지듯이,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또한 분열의 길로 나아간다. 이 비교는 분명 노아의 실패가 아담의 실패 이후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¹⁶⁾ 노아의 실패가 자녀들의 분열을 가져오고, 마침내 이들이 저지르는 일은 하나로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שֵׁם)을 내는 것으로 귀결된다(창 11: 4). 이것은 흡사 아담과 가인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그대로 연상시킨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하여 ‘네페림’이라는 ‘고대의 용사이며 유명한 사람’을 낳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은 אֲנֹכִי וְשֵׁם(안세이 하셈)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름의 사람들’이다. 즉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인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악으로 인해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¹⁷⁾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경구(창 6: 5)로 그 결론에 도달했던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노아의 후손에 이르러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경영하는 일’(אֲנֹכִי) 자만을 금지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11: 6).

안타깝게도 제 2의 아담으로서 회복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노아 또한

16) 그 반복적인 실패의 동일한 과정에 대한 비교 도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 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30집(2008년 12월), 35쪽; Anderson, 윗글, 23-39쪽.

17) Allan K. Jenkins, “A Great Name: Genesis 12:2 and the Editing of the Pentateuch,” JSOT 10 (1978), 45쪽.

희망의 문턱에서 무너지고 만다. 노아가 처음에 쌓았던 예배의 제단은 사라지고, 인간의 야망을 보여주는 바벨탑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던 노아는 קִינִיז(짜디끄/의인)와 תַּמִּים(타밈/완전한 자)으로 시작하여, שָׂרָר(샤카르/술 취하다)로 뒤틀리고, 마침내 그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악한 מַמְלָכָה(자맘/경영하다)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¹⁸⁾ בָּרַךְ(바라크/복 주심)는 더 강한 אָרַךְ(아루르/저주)가 되어버렸고, 이제 대홍수와 같은 전면적인 심판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흩어지는 불행을 겪는다. 이제 누가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이 분열을 막고, 이 땅에 저주 대신 축복이라는 회복을 가져올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혼돈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신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희망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4. 아브라함과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는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 창조(혹은 재창조) 이미지, 예비하신 땅,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 축복과 저주, 이들과 후손들의 이야기(불화와 분열) 등의 공통점들이 아브라함이 아담과 노아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확신케 한다. 창조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에서처럼 혼돈의 물을 가르는 대 파노라마는 펼쳐지지 않지만, 인간 악의 혼돈 속에서 한 사람을 구별해 내시는 사건이 새로운 창조의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밀접한 언어적, 주제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¹⁹⁾ 이 창조의 이미지 속에는 공통적으로 '복 주다'라는 요소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특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내용 속에는 '복'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단 두 구절 안에 동사형인 בָּרַךְ(바라크/복 주다) 3번(창 12: 2, 3(2번)),

18) H. A. J. Kruger, "Subscrips to Creation: A Few Exegetical Comments on the Literary Device of Repetition in Gen. 1-11," André Wénin (ed.),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BETL), (Leuven: Leuven University/Peeters, 2001), 439쪽; Rendsburg, *윗글*, 23쪽.
19) 김재구, *윗글*, 36쪽; Dumbrell, *윗글*, 61쪽; Thomas L. Brodie,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ical, &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0-11쪽.

천지창조(창 1: 1 - 2: 3)		아브라함을 통한 새 창조(창 12: 1-4)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의 혼돈 (언어의 혼돈과 흩어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אמר אלהים) (1: 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אמר יהוה) (12: 1)	
사 람 에 대 한 축 복	남자와 여자	아브람과 사래	
	그들에게 복(ברך)을 주시며(1:28)	네게 복(ברך)을 주어(12: 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שמ)을 창 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1: 30)		이에 여호와와 말씀은 좃아갔고(12: 4)	

명사형인 **ברכה**(베라카/복) 1번(창 12: 2), 그리고 분사형인 **מברך**(메
바레크/축복하는 자) 1번(창 12: 3)을 사용하여 복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 염원은 창 12장 3절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를 축
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
리니(אֲרִיךְ אֶת־)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
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더 이상의 저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도 쟁취하기를
원했던 **שמ**(שמ/이름, 명성)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이름은 인간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으로, 약속된 여
러 복 중 하나로 나타난다.²⁰⁾ 이런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는 아담에게는 에덴동산을, 노아에게는 아라랏산 지역을 허락하셨고, 이
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을 주셨다. 이 장소가 새로운 기
회의 땅이 될 것이며, 수천 년에 걸친 희망이 현실이 되는 장소가 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아담과 노아라는 원형에 대한 대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두 번째 노아’이자 ‘세 번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
다.

아브라함이 이런 희망에 찬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왔을 때 위기가 닥쳐 왔다. 그 땅은 결코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

20) Jenkins, 윌클, 41-57쪽.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창 12: 6).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했었느냐 아니냐?”라는 시대착오적인 논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땅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²¹⁾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창 12: 7).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느냐가 차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열쇠가 된다. 아브라함은 그 곳 세겜에 제단을 쌓고, 또 벧엘과 아이 사이로 옮겨 제단을 쌓는다(창 12: 8). 그리고는 여호와와 이름(עֲשֵׂה)을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와 이름을 높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 헤브론에 여호와와 제단을 쌓는다(창 13: 18). 아브라함이 북쪽의 세겜, 남과 북의 경계인 벧엘과 아이 사이, 그리고 남쪽 헤브론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모리아 산의 제단을 제외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결국 여호와와 제단이 서 있는 곳이 여호와와 땅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결코 제단을 쌓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그곳에 가나안 사람의 신전이 있건 없건, 여호와와 제단을 세움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증거한다.²²⁾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순종과 예배와 함께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것은 바로 후손의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들인, ‘큰 민족, 이름의 창대, 북의 근원’이라는 대 명제들은 단 하나, 후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출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창 11: 30)고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취한 후사인 조카 롯과도 헤어지게 하시고, 집에서

21) Nahum M. Sarna,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91쪽.

22) 윗글, 92쪽. 사르나는 이 지역들은 이미 가나안의 신전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지음으로 그 지역들에 새로운 종교 역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키운 종인 엘리에셀 또한 거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 하신다(창 15: 4). 이에 사라는 먼저 주도권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인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정황과 어휘적 전개는 마치 에덴동산에서 선악과와 연루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연상시킨다. 두 사건 모두 여성들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자(הַאִשָּׁה 하잇샤)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חָקַח 라콰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אִישׁוֹ 레이샤흐) 주매(נָתַן 나탄) 그도 먹은지라...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שָׁמַעְתָּ לְקוֹל אִשְׁתְּךָ) 사마타 레콜 이쉬테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창 3: 6, 17)

사래가 아브람에게...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שָׁמַע אַבְרָם לְקוֹל שָׂרָה) 이쉬마 아브람 레콜 사라) 아브람의 아내(אִשְׁתּוֹ-אֲבָרָם 에쉴트 아브람)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חָקַח 라콰흐) 그 남편 아브람에게(אַבְרָם-אִישׁוֹ 레아브람 이샤흐) 첩으로 준 때(נָתַן 나탄)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창 16: 2-4a)

히브리어 성서에서 오직 이 두 곳에서만 남편들이 '여인, 즉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주도권으로 어떤 것을 '취하여'(חָקַח 라콰흐), 남편에게 '주는'(נָתַן 나탄) 일련의 행위들이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흡사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행동과 동일하게 비추어짐으로써 또 한번의 실패의 조짐이 보이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듯하다.²³⁾

그러나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뒤엉키는 이러한 위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마침내 해결의 국면으로

23) G. J. Wenham, *Genesis 16-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94), 7-8쪽.

접어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해 불순종의 실패로 끝나버렸던 과거의 사건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순종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보낸다(창 21: 11-14).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한 마디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번제로 바치려 한다(창 22: 1-10).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미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삭은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는 대결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선언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창 26장 11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삭’에 대하여 명령하기를(וַיֹּאמֶר אַבְרָהָם לְעַמּוּתוֹ הַזֶּה וְלְעַמּוּתוֹ הַזֶּה וְלְעַמּוּתוֹ הַזֶּה וְלְעַמּוּתוֹ הַזֶּה וְלְעַמּוּתוֹ הַזֶּה) (하노게아 바이쉬 하제 우베이쉬토 모트 유마트/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손이라도 대는 자는 죽으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וַיֹּאמֶר אֱלֹהִים) (창 3: 17) 과 관련된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녕 죽으리라”(וּמֹת תָּמוּת) (모트 타무트; 창 2: 17)는 표현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하여 뱀에게 대답하는 “만 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לֹא תִמָּוֵת פֶּן-תָּמוּתוֹן) (로 티그우 펜-테무툼; 창 3: 3)를 다 포함한 말이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금단의 열매와 같다.²⁴⁾ 그 권위를 침범하는 자는 부모는 물론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무사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아담을 쓰러뜨린 시험 앞에 섰으며, 결국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던 것처럼 이삭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린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한다.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의 출발에서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 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וַיְבָרֶכְךָ) (바라크)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וַיְבָרֶכְךָ) (바라크) 이는 ‘네가 나의

24) Jae Gu Kim,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the Isaac-Rebekah Cycle(Genesis 23:1-25:18)," J. R. Wood, et al.(eds), *From Babel to Babylon: Essays on Biblical History and Literature in Honour of Brian Peckham*, (LHBOTS 455[JSOTS]), (New York: T&T Clark, 2006), 45-46쪽.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יִלְלֵנוּ אֱלֹהֵינוּ 사마타 베콜리)(창 22: 16-18)

복이 살아난다. 막연히 먼 곳에만 있는 것 같았던 그 '복 주심'이 이제 실체가 되며 현실이 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에 순종했던 것에 반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²⁵⁾ 사람의 말과 자신의 의지만을 따르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고 그 명령에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가능케 한다. 물론 아브라함 또한 비교 대상인 아담과 노아처럼 실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명령 없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창 12: 10),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들, 그리고 후손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 탄생 전까지 25년 동안 '롯-엘리에셀'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 수단을 강구한 것 등이다. 그러나 순종으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 모든 실패와 역경들을 다 던지고, 마침내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전폭적인 헌신을 뜻하는 제단을 쌓는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

이와 같이 순종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어 낸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다. 이 사실은 독특하게 사용된 한 단어의 활용을 통해 쉽게 간파해 볼 수 있다. 창세기에는 '심다'라는 뜻을 가진 שָׁמַר(나타)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창세기 전체에서 단 세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이하게도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되며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 창 2: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שָׁמַר 나타)
* 창 9: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שָׁמַר 나타)
* 창 21: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שָׁמַר 나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25) Nahum M. Sarna,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161쪽; Karel A. Deurloo, "Because You Have Harkened to My Voice (Genesis 22)," M. Kessler(trans. & ed.), *Voices From Amsterdam: A Modern Tradition of Reading Biblical Narrative*, (Georgia: Scholars Press, 1994), 125쪽.

이 세 경우 모두 동사의 사용 형태까지 똑같다(בָּטַח 바이타). 에덴동산을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올바른 예배가 있는 성전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을 맡아 포도 동산을 만들고, 그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만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예배를 벗어난 이방의 풍습에 빠진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막내 아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여, 그의 텐트로부터 쫓아내 버린다.²⁶⁾ 결국 노아의 후손들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 유랑하는 삶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지를 꺾고, 이방의 풍습에 빠지지도 않으며,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יְהוָה)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를 이루어낸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전 존재조차 무시해 버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과 예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성지로 만들어 간다. 그 땅은 예배와 순종이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며,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의 비교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나 롯이 겪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파멸에 이른다. 둘째,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셋째, 그 구원 후에 술 취함과 근친상간의 죄악이 저질러진다. 넷째,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다. 그 외에 언어적인 연결성도 나타나는데, '의인'(יָדֵי צְדָקָה 짜디끄; 창 6: 9; 7: 1; 18: 22-33)이 강조되고, '파멸하다'(שָׁחַט 샤향트)라는 단어의 분사형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창 6: 13; 19: 13).²⁷⁾ 이 비교를 통해서 노아의 실패는 롯의 실패와 연결되고, 술 취함으로 인한 근친상간은 가나안 땅 밖의 모압과 암몬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결

26) David Carr,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Revisited: A Synchronic Analysis of Patterns in Genesis as Part of the Torah(Part Two)," ZAW 110 (1998), 332쪽; Kruger, 윗글, 439쪽.

27) W. M. Clark, "The Flood and the Structure of the Pre-Patriarchal History," ZAW 83 (1971), 195쪽.

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재를 하는 사람이다(창 18: 22-33).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 3; 22: 18).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축복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게 된다. 마지막 이야기는 어느 누가 보아도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또한 그로 인해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창 24: 1, 31, 35; 26: 4-5; 30: 27). 저주가 사라져가며, 형제 사이의 불화 또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록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연합한다(창 25: 9).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다툼도 없으며, 평온한 삶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한 복을 맘껏 향유하는 삶을 살았다. 극심한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창 26: 2-5)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가뭄의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창 26: 12).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땅이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폭적인 순종을 통한 예배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삶의 사명이 된다(신 11: 13-14; 28: 1-14).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극심한 저주가 언제 또 땅을 뒤덮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담과 노아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대형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과거(원 역사)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래(죽장사)를

열어갈 순종과 예배라는 삶의 길을 제시해 준다.

5. 나기는 말

아브라함은 두 번의 기회를 무효로 만든 선조들 아담과 노아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과 예배를 행한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가치는 족장사의 시작을 여는 인물이라는 점에 두기보다, 아담과 노아의 뒤를 이어 원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에 더 큰 강조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²⁸⁾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원역사'라고 불리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75세에 부름 받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에 의해 그 존재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제 '원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죄악 된 과거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과거의 역사만을 뒤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이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극심한 흉년이든지, 엄청난 대홍수가든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순종과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간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음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과 노아라는 원형에 대한 대형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원형의 모습을 복원해 낸다. 그리고 그는 대형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원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과거 두 선조의 실패를 해결함으로 가능해졌다.

6. 참고문헌

김 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30집(2008년 12월), 31-51쪽.

김 창주, “에로스 동산과 에덴동산,” 「구약논단」 25집(2007년 9월), 120-41쪽.

Anderson, B. W., “From Analysis to Synthesis: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1-11,” *JBL* 97 (1978), 23-39쪽.

28) Brodie, 윗글, 92-93쪽.

- Bassett, F. W., "Noah's Nakedness and the Curse of Canaan: A Case of Incest?" *VT* 21 (1971), 232-37쪽.
- Brodie, Th. L.,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ical, &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arr, D.,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Revisited: A Synchronic Analysis of Patterns in Genesis as Part of the Torah(Part Two)," *ZAW* 110 (1998), 327-347쪽.
- Childs, B. S., "Tree of Knowledge, Tree of Life," *IDB*,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695-97쪽.
- _____,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lark, W. M., "A Legal Background to the Yahwist's Use of 'Good and Evil' in Genesis 2-3," *JBL* 88 (1969), 266-78쪽.
- _____, "The Flood and the Structure of the Pre-Patriarchal History," *ZAW* 83 (1971), 184-211쪽.
- Cohn, R. L., "Narrative Structure and Canonical Perspective in Genesis," *JSOT* 25 (1983), 3-16쪽.
- Deurloo, K., "Because You Have Harkened to My Voice(Genesis 22)," M. Kessler (trans. & ed.), *Voices From Amsterdam: A Modern Tradition of Reading Biblical Narrative*, (Georgia: Scholars Press, 1994), 113-30쪽.
- Dumbrell, W. J., *Covenant &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Devon: Paternoster Press, 1984).
- Fokkelman, Jan P., *Reading Biblical Narrative: An Introductory Guide*, Ineke Smit (tran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Forrest, R. W. E., "Paradise Lost Again: Violence and Obedience in the Flood Narrative," *JSOT* 62 (1994), 3-18쪽.
- Gros L., K. R. R., "Genesis 3-11," K. R. R. Gros Louis (ed.), *Literary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vol. II, (Nashville: Abingdon, 1982), 37-52쪽.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Jenkins, A. K., "A Great Name: Genesis 12:2 and the Editing of the Pentateuch," *JSOT* 10 (1978), 41-57쪽.
- Kim, Jae Gu,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the Isaac-Rebekah Cycle(Genesis 23:1-25:18)," J. R. Wood, et al.(eds), *From Babel to Babylon: Essays on Biblical History and Literature in Honour of Brian Peckham*, (LHBOTS 455 [JSOTS]), (New York: T&T Clark, 2006), 38-47쪽.
- Kruger, H. A. J., "Subscrips to Creation: A Few Exegetical Comments on the Literary Device of Repetition in Gen. 1-11," André Wénin (ed.),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BETL), (Leuven: Leuven University/Peeters, 2001), 429-46쪽.
- Landy, F., "The Song of Songs and the Garden of Eden," *JBL* 98 (1979), 513-28쪽.
- Niditch, S., *Chaos to Cosmos: Studies in Biblical Patterns of Creation*, (Georgia, Atlanta: Scholars Press, 1985).
- Rendsburg, G. A., *The Redaction of Genesis*, (Indiana: Eisenbrauns, 1986).

- Sarna, N. M., *Understanding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 _____,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asson, J. M., "The Tower of Babel as a Clue to the Redactional Structuring of the Primeval History (Gen. 1-11)," G. Rendsburg (ed.), *The Bible World: Essays in Honor of Cyrus H. Gord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80), 211-19쪽.
- Steinmetz, D., "Vineyard, Farm, and Garden: The Drunkenness of Noah in the Context of Primeval History," *JBL* 113 (1994), 193-207쪽.
- Tomasino, A. J., "History Repeats Itself: The 'Fall' and Noah's Drunkenness," *VT* 42 (1992), 128-30쪽.
- Wenham, G. J., *Genesis 1-15* (WBC), (Waco, Texas: Word Books, 1978).
- _____, *Genesis 16-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94).
- _____,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R. S. Hess/D. T. Tsumura(eds.),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4), 399-404쪽.

검색어

원 역사

아담

노아

아브라함

순종

예배

대형

투고일: 2009년 1월 10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15일

Adam and Noah's Failures and Abraham's Success

Jae-Gu Kim

Lecturer at Hyup Sung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h. D.

This paper stands on the premise that the worth of Abraham's being cannot be properly evaluated without regard to Adam and Noah before him.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Adam-Noah and Abraham, Abraham would be rather closely connected to the primeval history(Gen. 1-11) than to the patriarchal history. To deal with this connectedness, the methodology is spontaneously limited. Here is adopted the canonical approach based on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integrity of the book of Genesis, not on the historical criticisms, such as the source, form, and traditio-historical criticisms.

Adam's good start with the great complements, "It was very good," ends in a disobedient failure. Obedience and true worship intended in the Garden of Eden are destroyed, curse is poured upon the land, and the split between brothers and human hubris are everywhere. As a second Adam, Noah starts his new creation-journey with the complements, the one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and "walking with God." But because of his failure allusive to the incest and pagan worship, Noah curses the descendants of Ham. Then, cursed land

has more curses. These two persons have blown away the dreams of God, that is, obedience and true worship. Likewise, Gen. 1 - 11, called the primeval history, repeats the same failures, one by Adam and the other by Noah. But in the beginning and end of Abraham's life journey, his faithful response, related to obedience and true worship, to the order of God opens up a new horizon to the human world. It is because the will of God which Adam and Noah did not realize has finally come true by Abraham. For this reason, the worth of Abraham is focused not on the person who opens up the patriarchal age, but more on the person who has brought the primeval age to perfection.

Likewise, the comparison between Adam-Noah and Abraham demonstrates, firstly, the reason God calls out Abraham from Ur of the Chaldeans and, secondly, the reason Abraham's faith is so cherished. Through this comparison, it can be contended that Abraham be a third Adam, and a second Noah. And it is more emphasized that Abraham belongs more with Adam and Noah stories than with the patriarchal history.

Keywords

the primeval history
Adam
Noah
Abraham
obedience
worship
antitype

